



소비자의 카트에 장성 포도를 담고 있는 유두석 장성군수.

장성군, 지역 여름과일 소비 팔 견었다

‘엘로우시티 여름과일 컬렉션’ 열여

장성군이 지역 여름과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장성군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농협광주유통센터에서 ‘엘로우시티 장성 여름과일 컬렉션’을 열고 여름과일 판촉행사와 장성 홍보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판촉행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은 관광객과 여름휴가

를 준비하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장성의 여름과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장성의 대표적인 여름과일인 수박, 복숭아, 포도, 플럼코트, 오디와 새싹삼의 효능에 대해 소개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인 황룡강과 수변길과 출렁다리로 걷는 재미를 더한 장성호 등 장성의 관광 핫플레이스도 홍보했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전남도 ‘공인 글자체’ 알아보기 쉽게 교체

전남도는 기존 공인의 글자체가 ‘한글전서체’여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워 모든 도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공인을 교체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인 교체 대상은 총 935점이다. 이 가운데 전남도 대표 공인인 전남도지사 직인과 전남도지사 민원사무전용 특수공인 2점은 (사)한국서예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담현 전명옥 선생이 기증한 서체로 교체된다.

전남도는 역동하는 전남의 위상과 혼을 서예가의 감각적 필묵에 담아 독창적이고 주제적인 전남도 대표 공인을 만들었다.

담현 전명옥 선생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 가운데 월인천강지곡과 용비어천가 서체를 바탕으로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살리고 선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도 힘이 있는,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

경기도, 유망 창업기업 발굴·지원 나서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2019’ 실시

경기도가 ‘공정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유망 창업기업 발굴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2019’에 참가할 예비·재창업자를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새로운 경기 창업

공모’는 과거 UP창조오디션을 개편한 것으로, 우수한 사업화 과제를 보유한 예비 창업가는 물론, 실패 경험이 있는 재창업가까지 육성·지원하기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선보이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시상금만 지급하던 단편적 지원방식에서 탈피, 창업기업에 액셀러레이팅과 해외 진출 기회까지 제공한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kimsy@

강남 3구 재산세 6770억원 서울 25개 자치구의 37.6%

강북구 213억원, 1.2%로 최저
강남구 2962억원과 14배 차이
서울 주택·건물 재산세 1.8조

올해 7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770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6%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962억 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 원(10.8%), 송파구 1864억 원(10.4%) 순이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 원(1.2%)이다. 도봉구가 244억 원(1.4%), 중랑구가 279억 원(1.6%)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4배다. 작년의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가 1조 7986억 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고지서 440만 건을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 3천(5.1%) 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 5천(6.2%) 건, 단독주택이 1만 3천(2.6%) 건, 비주거용 건물이 2만 5천(2.8%) 건 증가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 6138억 원)보다 11%(1848억 원) 증가했다.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 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9천 510세대)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가 18.4%(290억 원)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 원) 감소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영향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3636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재산세 고지서에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광주 中企 40% “동반성장 여건 나쁘다”

2분기 대기업 협력업체 130곳 조사
동일하다 56.2%, 좋다 2.2% 그쳐

광주지역 중소기업 40% 가량은 대기업과 동반성장 여건이 여전히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분기 광주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애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중소기업 13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다.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간 거래·동반성장 여건을 묻는 조사에서 ‘나쁘다’ 41.6%, ‘동일하다’는 56.2%로 응답한 반면, ‘좋다’는 2.2%에 그쳤다.

대기업과 동반성장 여건이 나쁘다고 응답한 주요원인은 ‘납품물량 감소’(50.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낮은 납품단가’(35.9%)가 그 뒤를 이었다.



12일 광주 하남산단에 소재한 삼성전자 ‘그린시티’를 방문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스마트공장 벤치마킹을 위해 냉장고 제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적정성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73.1%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력사들은 적절한 납품단가 책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상승 등 인건비’(50.0%)와 ‘원재료 등 재료비 변동분’(36.2%)이 반영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반성장 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에 바라는 사항은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39.1%), ‘납품물량 보장’(34.0%), ‘중소기업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19.4%), ‘공정거래 준수’(7.1%) 순으로 나타났다.

마련돼야 될 정부 대책으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강화’(31.5%),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지원’(26.8%), ‘지역산업 다변화·신규 대기업 유치’(16.1%),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인식개선’(11.4%), ‘대기업 해외이전 방지’(11.4%) 등을 꼽았다.

지자체에는 지속적인 경기악화로 인한 경영난 해결지원, 저금리 대출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미세먼지 해결 된다면 연 14만원 부담 의향”

서울 시민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한해 13만8000원까지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적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시 551가구를 면접 조사한 결과 2025

년까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연평균 13만8107원으로 나타났다.

지불용의액은 경제학에서 소비자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는 2017년 기준 25μg/m³인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를 2025년까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보고서 총 가구 적용땀 연간 5407억 달해

지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간 권고 기준3(IT-3)인 15μg/m³까지 낮추기 위해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액수를 의미한다.

서울의 총가구 수를 적용하면 서울시민이 미세먼지 정책을 위해 낼 수 있는 총 지불용의액은 연간 5407억원에 달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15일 (월)
음력 : 6월 13일

수도권 날씨
29 ~ 22℃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22 | 해질 / 19:53

연천 20/29, 동두천 20/29, 가평 20/29, 서울 22/29, 양평 21/30, 용인 22/28, 수원 22/28, 평택 20/30, 파주 20/29, 백령도 19/26, 인천 22/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